<국제심포지엄 기조강연>

한국학, 세계화를 위한 방법론적 전략*

- 한류가 주는 교훈 -

임 현 진**

1. 한국학: 지역학을 넘어
2. 한류의 사례: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3. 한국학의 대상과 방법: 사회과학의 문제틀

1. 한국학: 지역학을 넘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중국의 공자, 맹자, 장자, 노자의 저서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과 사상이 담겨져 있다. 이들의 저서는 인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오래된 지성의 보고라는 점에서 고전(classics)이라고 부른다. 오늘의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기에 그들의 지식과 사상을 우리는 구차하게 그리스학 혹은 중국학이라 부르지 않는다. 물론 유럽이나 아시아 지성사의 맥락에서 그리스나 중국을 학문적 연원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태여 그들의 학문적 업적을 국가라는 테두리로 가두어 놓지 않는다.

사회과학의 시조라 할 맑스(K. Marx), 뒤르켐(E. Durkeim), 베버(M. Weber)

---

* 이 글은 제13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2020. 11. 5) 기조강연 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학문적 성취는 전세계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왔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들은 세계관으로부터 이론구성과 방법론적 전략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과학적 성취를 그들의 국적에 따라 독일학, 프랑스학, 혹은 영국학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을 것이다.

알렉스 토크빌(A. Tocquevill)은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마을 수준에서의 결사체의 존재와 습속 나아가 지방자치 등이 미국이라는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작동케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제와 프랑스혁명』(*Ancien Regime and French Revolution*)에서 프랑스는 바로 그러한 제도와 문화의 결여로 인하여 전체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고 이것이 바로 프랑스혁명을 가져온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두 권의 책은 민주주의의 태동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유무를 비교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토크빌이 미국과 프랑스에 대해 연구를 했다고 그를 미국학 혹은 프랑스학을 전공하는 학자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의 출현과 작동에 관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연구한 불세출의 사회과학도일 뿐이다.

한국학이라 하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식체계를 통칭한다. 이렇듯이 한국학이라 하면 내포 보다 외연이 매우 크다.[1] 그러므로 한국학의 넓은 외연에서 적절한 내포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학을 넓은 외연에서 보면 모든 학문 분야가 포함될 수 있고, 좁은 내포로 보면 역사, 언어, 문화, 사상, 지리 등 지역적 특수성에서 파악할 수 있다. 황패강은 "한국에 관한 인문·사회·자연과학 각 분야의 통합적 연구로 '한국'의 성격을 밝혀낸다"라고 광의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2] 황희영은 "역사 속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를 알고, 알리고, 세계 역사에 우리 문화의 가치를 심기 위하여 나라밖

1)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동택, 2002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을 향하여: 국내외 한국학 지원현황과 대안」『역사비평』 61; 김경일, 2002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64; 전상인, 2005 「한국학과 사회과학의 대화: 역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한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푸른역사.

2) 황패강, 1982 「한국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14, 93면.

에서의 한국학을 돕고, 나라 안에서의 전통 문화의 재구와 창조를 위한다"라고 협의로 바라본다.[3] 여기서 논의의 편의상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가에 따라 한국학의 내포와 외연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분야의 학문체계의 일부이지 '한국학'이라 좁게 접근하거나 규정할 필요가 없다. 김승환이 지적했듯이 "21세기 들어 한국을 주제와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한국학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그간 국어학, 국문학, 국사학, 한국철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각기 다른 학문적 원리로 존재하던 한국학은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종합학문으로 재인식된 것이다."[4] 나의 경우 한국에서 사회학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본적으로 사회학자로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를 지역적 관심으로 하고 있다. 비록 한국을 주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미국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국제사회학회(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혹은 세계사회경제학회(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 등 국제학계에서 나의 정체성은 한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사회학자이지 굳이 '한국학 전공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나 국제아시아학회(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n Scholars)에서 나의 학문적 정체성은 사회학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연구자로 분류되곤 한다.

외국 학자들이 지역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한국 학자들의 한국에 관한 연구는 한국학이라는 범주에 위치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역사, 언어, 문화, 사상, 지리에 관한 연구는 지역학적 특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 중 고대사를 전공한다면 이는 한국의 역사에 관한 지역학으로 인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교문법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연구한다면 이는 지역학이라기보다 언어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이점에서 한국에 관한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구는 지역학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 관한 연구라도 이를 지역학을 넘어 일반적인 학문체계 안에 위치시키는 것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

3) 황희영, 1978「나라 밖 한국학 개황」『나라사랑』 29, 183면.

4) 김승환, 2010「한국학의 갈래와 개념」『배달말』 47, 283면.

한국학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그것의 연원과 전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미의 사회과학은 중심부의 관점에서 비서구의 인문사회과학을 지역학으로 협애화하였다.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은 원래 유럽의 서세동점 시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사회과학(historical social science)이라는 통합적 학문체계를 추구하는 월러슈틴(Wallerstein)에 의하면, 지역학은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다음으로 성립한 후발분야로 파악한다.[5]

제2차 세계대전을 전기로 중요한 세계적 변동이 일어나면서 사회과학 전공들의 구성도 중대한 변화를 갖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적인 패권을 쥐었고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체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부각되었다. 둘째, 나중에 '제3세계'라고 불리게 된 나라들이 정치적 격동과 지정학적 자립선포의 장소로 부각되었다. 셋째, 팽창하고 있던 세계경제와 강력히 증가하던 민주화 경향의 조합은 교수와 학생 그리고 대학의 숫자 면에서 엄청난 규모의 세계 대학체제의 팽창을 가져왔다. 이 세 가지 변화와 함께 과거 일세기에서 일세기 반에 걸쳐 공고화된 분과 학문 사이의 공고한 학문적 분업이 헝클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자들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 세계의 다른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던 것들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을 길러내는 '지역학'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6]

미국에 의해 한국학이 제도화되기 이전 한국학의 유래를 살펴보면 그 역사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조선학'이라는 국가학(國家學)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조선학에 대해 민족주의 성향을 갖는 한국 학자들의 대응이 '자국학=본국학'의 형성으로 이어

5) 이매뉴얼 월러스틴(이광근 옮김), 2005『월러스틴의 세계체제분석』, 당대.

6) 김경일, 1998「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김경일 편), 문화과학사; I. Wallerstein, 1997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Cold War Area Studies," in N. Chomsky et al., *The Cold War and the University: Toward an Intellectual History of the Postwar Years*, The New Press.

졌다. 이러한 본국학으로서 조선학은 외래의 학문방법론을 사용하는 '관학파(官學派)'와 우리 학문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국학파(國學派)'로 나뉘어지게 되었다.[7] 한국학은 애초부터 국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바깥에서 국가학으로 주조되었다면, 그에 대한 극복으로서 민족을 찾는 방향에서 우리 안에서 관학 내지 국학으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이후 한국이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었듯이 구미열강들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국내에서 한국학이 우리 손으로 재구축되기 전에 해외에서 한국학(Korean Studies)이라는 형태의 지역학이 성립하게 된 배경이다. 특히 한국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중심국이라 할 미국의 대외정책 이해관계 아래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8] 미국이 세계전략이라는 구도 아래 전 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연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면서 한국학도 그 범주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9] 주로 미국에서 교육받거나 활동하는 미국인은 물론 한국계 출신을 포함하는 외국인 출신 학자들이 한국학을 주도하여 온 이유이다.[10] 지역연구로서 한국학은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한국에 대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 아래 전개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한국학이 지니는 정체성의 빈곤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첫째, 일제식민지 공간에서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부정되는 상황에서 한국학이 왜곡되

---

7) 김철, 2005 「'결여'로서의 국(문)학」『(고려대학교 개교100주년 심포지움) 한국학의 정체성 대토론회: 민족학, 지역학 또는 해체』.

8) 브루스 커밍스(한영옥 옮김), 2004 「경계의 해체: 냉전과 탈냉전시대의 지역학과 국제학」『대학과 제국: 학문과 돈, 권력의 은밀한 거래』, 당대.

9) 김경일, 1998 앞의 글.

10) 미국이 1960년대 초반 이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든 평화봉사단(Peace Corps)으로 한국에 온 자원봉사자들 중 일부가 이후 미국에서 제2세대 한국학 연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위에서 언급한 Cumings도 평화봉사단의 일원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S. Kim and M. Robinson, 2020, *Peace Corps Volunteers and the Making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를 보라.

었다면, 해방이후 타율적 발전과정에서 한국학계가 자기중심을 세우지 못했다. 둘째, 해방이후 국토분단과 이후 한국전쟁에 따른 국민국가의 결손이 이데올로기적 제약은 차치하고라도 한국학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한국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온전한 연구를 기대하는 것이 자체가 무리이듯 반 조각 한국학이 만들어져 온 셈이다. 셋째, 역사를 포함하는 인문학과 달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한국학의 전통이 외래이론의 범람 아래 소홀히 취급되었다. 외래이론의 비판적 적용을 넘어서 우리 고유의 문제틀에 의한 한국적 지평에서의 사회과학적 이론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데 학문의 국적성(國籍性)을 얘기하는 것은 일견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학문의 국적성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독창적 이론화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의 경우 외래이론에 대한 의존성은 보수학계나 진보학계의 경우 별반 차이가 없다. 지역연구로서 한국학이 사례연구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사회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는 이유는 한국이 서양의 거울에 비춘, 이론적 검증이나 반증을 위한, 일종의 실험자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학이 지역연구에 그칠 때 한국의 사회과학은 구미라는 중심부의 지류로서 영원한 종속적 신세를 면치 못할 우려가 있다. 한국의 사회과학의 독창적 이론화를 위해 한국학은 지역연구를 넘어 세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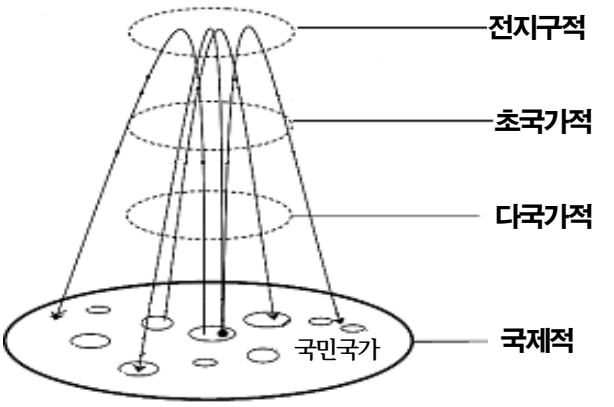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국학이 지역학을 넘어 보편적 문제틀 구성을 위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학의 문제틀 구성이라는 맥락에서 한류의 사례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국학의 바람직한 미래지향을 위해 사회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보편적 지식체계로 자리잡기 위한 방법론적 전략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11) 임현진 · 정일준, 2012「사회학에서의 한국학 연구동향: 한국학의 세계화 전략 모색」『한국학연구』43, 466면.

2. 한류의 사례: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라는 메가트렌드 아래 살고 있다. 지구 위의 개인, 집단, 국가 그 어느 것도 세계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세계화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을 동시에 던져준다. 이러한 세계화는 명암이 갈리고 득실이 갈린다. 세계화는 앞선 자를 더욱 살찌게 하지만 뒤선 자가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 둘 사이의 간격을 더욱 벌려주고 있다. 무한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라는 냉혹한 논리가 세계화 흐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지구적 불균형(imbalance), 불평등(inequality), 부정의(injustice) 현상이 비단 산업, 금융, 무역뿐만 아니라 계층, 문화, 환경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란 세계 전체가 국경의 벽을 넘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와중에서 과거 국가의 품 안에 있었던 개인, 집단, 지방들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와 직접 맞상대하며 또한 지구 규모의 민간조직들이 국경을 넘어 국가의 간섭을 벗어나 활동한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화는 다국적이고(multinational)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단계를 넘는 전지구적인(global)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림 1〉 세계화의 전개: 국제적, 다국적, 초국적, 전지구적[12]

지구시대의 변화무쌍하고 복잡다단한 동태와 모순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본질을 적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비(T. Harvey)가 지적한 대로, 세계화란 '시·공간 압축', 혹은 '시·공간 원격화'에 의해 지구가 한마당이 되면서 좋게는 평화, 인권, 환경 등 지구적 의식이 싹트기도 하고 나쁘게는 증오, 갈등, 전쟁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 현실을 말한다. 기든스(A. Giddens)가 주장한 대로 세계화를 근대성의 산물로 받아들이면, 세계화 자체가 서구적 프로젝트로서 그들의 사상·문물·제도의 확산이라는 의미를 지워버리기 어렵다. 촘스키(N. Chomsky)가 미국 중심의 세계화 논리에 따른 제국주의적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제2의 냉전논리라는 헌팅턴(S. Huntington)의 문명충돌론이 서구적 관점에서 기독교문명과 비기독교문명 사이의 문화갈등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 타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통과 탈근대가 근대성과 공존할 뿐만 아니라 반근대의 경향마저 지역적·국가적으로 잠재되어있는 현대 또한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세계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토플러(A. Toffler)가 정보혁명으로 통칭되는 제3의 물결 아래 나타나는 전쟁과 반전쟁의 우려를 제기한 것도 그 점에서 전혀 무리가 아니다. 후쿠야마(F. Fukuyama)가 말한 역사의 종언이 자유주의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속단은 최근의 좌우익 포풀리즘의 등장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민족, 인종, 젠더, 세대, 계층, 집단 등 사이에서 균열이 복합화되면서 자국 중심주의아래 포풀리즘이 나타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북미와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남미와 아시아로도 파급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벡(U. Beck)처럼 세계화를 제2의 근대성의 출현으로 보면서, 다중적 세계화(multiple globalizations)라는 문맥에서 서구적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우리 나름대로 대안적 세계화 기획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한류가 대안적 세계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국민국가의 입지 약화에 따라 또한 시민, 국민 혹은 민족 성원들이 라이시(Reich)가 언급한 바 있듯이 자기정체성에 회의를 갖거나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 현실이

12) J. Borrego, 1999 "Twenty-Fifty: The Hegemonic Moment of Global Capitalism," in V. Bornschier and C. Chase-Dunn (eds.), *The Future of Global Conflict*, Sage, p.185.

다.[13] 페더스톤(Featherstone)이 주장하는 제3의 정체성을 지니게 됨으로써 국가의 공동체적 기반이 쇠퇴할 소지가 높아진다.[14] 그러나 세계화 과정에서의 광범한 문화전파에 따른 다양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등장은 고유문화의 파괴와 달리 제3의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세계가 더욱 좁아지면서 지방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사이의 체계적 상호연결과 소통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세계지방화'(glocalization)와 '지방세계화'(locabalization) 현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세계지방화가 아니라 주변부적 상황에서 그것을 재창조하는 지방세계화를 강조하고자 한다.[15] 이제 인류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공간 및 시간 속에 갇혀 있기보다는 '포노 사피엔스'로서 언제 어디서도 제3의 문화를 즐김으로써 보다 보편적 인류의식이라는 감수성을 가질 수 있다. 세계화에 대한 부정과 긍정을 넘어 대안세계화론(alt-globalization)의 입장에서 한류는 세계화가 가져온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분열과 대립을 문화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인간적 세계화'(humanistic globalization)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류 연구는 한국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류 연구의 발전 과정을 보면,[16] 먼저 문화연구나 콘텐츠 연구 분야에서는 한류콘텐츠의 특성이나 강점, 성공요인 등 한류의 내재적 특징을 밝혀내는 것이 연구의 주된 주제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는 한류가 한국적인 특징을 지닌 문화콘텐츠로 여겨졌기 때문에 한국 문화콘텐츠가 가진 문화적 경쟁력을 밝히는 것이 주요한 연구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17]

---

13) R. B. Reich, 1991 *The Work of Nations: Capitalism in the 21st Century*, AA Knopf.

14) M. Featherstone (eds.), 1990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Vol.2*, Sage.

15) locabalization(지방세계화)는 필자가 만든 개념으로 영어로 localization과 globalization을 합친 것이다.

16) 이 내용은 장원호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장원호 외, 2014『한류와 아시아 팝문화의 변동』, 푸른길).

17)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고정민, 2005「한류 콘텐츠의 경쟁원천에 대한 연구」『문화산업연구』 5(2); 권도경, 2004『한국 고전서사원형과 문화콘텐츠』, 박이정; 김성옥,

이후 한류콘텐츠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을 거두게 되면서 한류연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즉, 한류 연구자들은 한류를 단순한 문화적 유행에서 경제적 · 산업적 상품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들의 주된 내용은 한류를 통한 수출 증진, 관광객 증대, 국가 인지도 상승 등 한류가 유발한 2차적 부가효과, 즉 정치 · 경제적 가치를 부각시켰다.[18]

이러한 전파과정에서 한류가 아시아 각 지역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한류 수용 국가들의 견제도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혐한류 혹은 반한류 경향이 강했는데, 이에 따라 한류 연구도, 한류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을 다루는 연구가 증가하였다.[19]

최근에는 한류에 관한 기존의 국가주의적 접근[20]을 벗어나 한류를 창조적 혼종문화(hybrid culture)로 보면서 한류를 통한 초국가적(transnational) 문화 교

2007「한국의 "한" 문화와 한류의 관계에 대한 고찰」『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2(1); 최민성, 2005「한류 지속의 동력으로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인문콘텐츠』(6) 등을 들 수 있다.

18) 이 분야의 연구로는 한류가 한국산 소비재 수출 증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거나[김정곤 · 안세영, 2012「한류의 한국산 소비재 수출에 대한 영향: 중국과 베트남 비교연구」『국제통상연구』 17(3)] 관광객 유입에 한류가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김은정 · 박상준, 2010「중국의 한류현상이 한국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한국항공경영학회지』 8(1)] 등이 있다.

19) 이 분야의 연구로는 김은희, 2012「중국의 시선에서 "한류(韓流)"를 논하다」『담론201』 15(4); 김익기 · 임현진, 2014『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한류』, 진인진; 김익기, 2012「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드라마 시청에 관한 연구」『역사문화연구』 43; 박상현, 2007「한류 문화산업의 반(反)한류 재발방지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21(2); 박정수, 2013「세계화와 민족주의의 문화갈등: 한중(韓中) 간 한류와 반한류의 사례분석」『중소연구』 37(1); 송정은 · 장원호, 2013「유투브(YouTube) 이용자들의 참여에 따른 한류의 확산: 홍콩의 10-20대 유투브(YouTube) 이용자조사를 중심으로」『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이윤경, 2009『반한류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은경 외, 2007「반한류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호텔경영학연구』 16(2) 등이 있다.

20) 국가주의적 접근이란 한류와 한국을 관련시키는 모든 시각을 말한다. 이 시각에는 한류를 한국문화의 우수성으로 보는 시각, 한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시각, 한류를 한국 소프트 파워의 증진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 등이 포함된다.

류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한류를 아시아 및 서구의 문화가 한국적 정서 속에서 창조적으로 재생산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창조적 혼종성이 범아시아적 나아가 세계적 유행을 불러일으킨 한류의 내적 요인이었다고 지적한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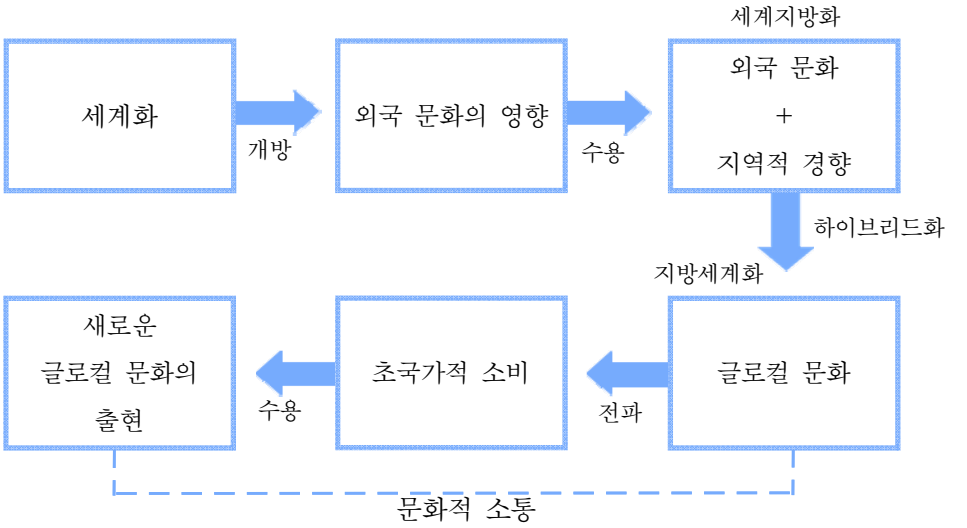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한류를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개념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개념을 도입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장원호와 송정은(2016, 2017, 2018)은 위에서 제시한 세계지방화(glocalization)와 지방세계화(locabalization)의 동시적 연결성을 소위 '글로컬문화화 과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22]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류는 먼저 세계지방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혼종성 문화이다. 이 과정에서는 세계화의 영향력과 지역적인 특성의 결합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한류가 이제 다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는 지방세계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장원호와 송정은은 지방세계화의 과정에서 한국적 상황에서 발현된 가족주의와 순수한 사랑과 같은 개념이 실제로 보편적인 정서이고 이러한 지방적 특색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성이 지방세계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세계화의 산물인 한류를 수용하는 국가에서 다시 자신들의 사회적 특성 속에서 새로운 지방세계화의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세계화의 연결고리와 같은 과정이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적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23]

---

21) 김수정, 2012「동남아에서 한류의 특성과 문화취향의 초국가적 흐름」『방송과 커뮤니케이션』13(1); 양재영, 2011「케이팝(K-Pop)의 글로컬(Glocal) 전략과 혼종정체성: '포스트-한류'시대 케이팝의 사회문화적 지형에 대한 소고」『음악응용연구』4; 현남숙, 2012「문화횡단 시대의 한류의 정체성 개념 분석을 중심으로」『시대와 철학』23(3); W. Jang et al., 2012「Multi-Dimensional Dynamics of Hallyu in the East-Asian Region」『한국사회학』46(3) 등은 한류의 혼종적 성향에 대한 연구흐름을 보여주는 예이다.

22) 장원호 · 송정은, 2016「글로컬 문화의 개념과 한류」『문화콘텐츠연구』(8); 2017「글로컬 문화와 한국 디지털 문화 콘텐츠: 웹드라마를 중심으로」『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11(6); W. Jang and J. Song, 2018 "Building Empathy in Hallyu," *Regional Sociology* 19(2).

23) 이와 같은 맥락의 연구로는 조규현의 일본한류의 연구를 들 수 있다(조규현, 2019「글로컬 문화로서 일본 한류에 관한 소고: 문화사적 계보와 가능성」『일본문화연구』69). 그



〈그림 2〉 한류의 글로컬 문화화 과정[24]

한류 연구가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개념에 기여하는 또 다른 연구로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성공과정을 포스트모던 이론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25] 이지영은 방탄소년단의 성공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진 팬클럽 ARMY와의 소통을 들뢰즈의 '리좀'이론으로 분석하면서 K-pop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6] 양희수와 현은정은 방탄소년단의 노래가사를 분석한 연구에서, 방탄소년단이 신자유주의적 경향이나 기존 사회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비판하면서 청춘이 그들만의 꿈을 가치관과 꿈을 갖는 것을 강조한 점은 들뢰즈 이론의 혁명적 생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7]

는 한류 연구의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문화혼종성과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제시하면서 문화사적 계보 연구로 한류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한류연구가 일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장원호 · 송정은, 2017 앞의 논문, 30면에서 재구성.

25) 이지영, 2018『BTS 예술혁명: 방탄소년단과 들뢰즈가 만나다』, 파레시아; 양희수 · 현은정, 2019「신문 기사 담론 토픽 모델링분석을 통한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문화와융합』41(1); 김소영, 2020「디지털 네트워크 세계의 팬덤에 나타난 포스트모던적 특성: '방탄소년단'과 '양준일'의 사례를 중심으로」『인문콘텐츠』56.

26) 이지영, 위의 논문.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의 경우가 매우 흥미롭다. 흙수저에서 출발한 방탄소년단은 해외출신이 없지만 세계시장의 추세를 읽고 젊은층의 취향에 맞게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FIRE'나 'Save Me Dynamite'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뉴노말 아래 우울증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젊은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이 소셜 미디아를 통한 직접 소통을 통해 파급력을 가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단순히 사랑이나 이별을 넘어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차별과 억압을 이겨내고 힘든 시대를 이겨낼 용기를 준 것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생소한 말춤이라는 댄스를 통해 문화충격을 주었지만 팬덤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영어도 짧게 사용하지만 한국어를 섞으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살리는 특징이 있다.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ARMY가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의 약자이듯이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춘의 대변자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한류의 세계적 유행에서 한국학의 내실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일본학과 중국학에 비해 초라했던 한국학이 일대 반전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대학 과정에서 한국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효가 일본학과 중국학에 비해 많다는 사실에 이를 증명해준다. 해외의 한국학 연구의 흐름을 보면 지역학으로서 한국의 역사, 언어, 사상, 지리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영역으로 전개되어왔다. 최근에는 한류의 확산 아래 K-pop, K-drama, K-film, K-novel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비드-19라는 비상사태 아래 한국의 모범적인 대응을 두고 K-방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K-democracy에 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때이르다 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 경험은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27) 양희수 · 현은정, 앞의 논문.

3. 한국학의 대상과 방법: 사회과학의 문제틀[28]

사회과학의 발상지인 유럽의 지평에서 볼 때 이론은 항시 현실을 설명하는 데 지체되어 왔다. 쿤(T. Kuhn)이 지적하는 패러다임의 교체는 바로 그러한 유관적합성(problem relevance)의 결여에서 나오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 우리의 경우 외래이론의 무비판적 수용과정에서 현실적합성의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고, 그 때문에 때로 이론이 현실을 견인하는 기현상이 사회과학의 실천성이란 명목 아래 나타나기도 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론의 상품주기가 짧은 연유도 유관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인 외래이론의 수입에 기인했다고 하겠다.

사회과학 내부에서 편차가 있지만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등은 인문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과학은 역사적 현실의 산물로서 시·공적인 존재구속성을 지닌다.[29] 둘째, 사회학과에는 용지불갈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이론이 존재하기 어렵다. 그리고 셋째 사회과학에는 한편에는 체제유지적이고 다른 한편에는 체제혁파적인 양면적 성향이 공존한다.

대체로 한국과 같은 반(半)주변부적 상황 아래에서 사회과학의 토착화가 제기되는 이유는 사회과학의 자생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당연한 결과로서 사회역사적 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관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의 토착화는 결국 자아준거성이라는 보다 큰 테두리 안에서 논의가 전개되기 마련이다.[30] 즉 자아준거성에 대한 강조는 비단 한국사회의 전통 문화·사상적 유산에 근거해서 현실적합성을 지니는 사회과학을 만든다는 단순한 의

---

28) 임현진 · 정일준, 2012 앞의 논문, 483-489면을 참고하고 있다.

29) W. H. Sewell Jr., 2005 "Three Temporalities: Toward an Eventful Sociology," in *Logics of History: Social Theory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0) 자국화라는 점에서 한국화(Koreanization)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국수주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한국이라는 지역적 공간에서 한정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아준거성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미를 넘어 재래의 것과 외래의 것, 오래된 것과 새것, 그리고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모두 섞인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화에 합당한 사회과학의 문제틀(problametique), 메타이론(meta-theory), 방법론(methodology) 등을 개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회과학 분야 중 사회학의 자아준거성 회복은 자폐적인 토착주의나 식민지적 국제주의를 거부한다.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가 제각기 중다(衆多) 패러다임(multi-paradigm)의 성격을 갖듯이 그 연원도 시간·공간상으로 다원적일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는 데 그 주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자아준거적 사회학은 궁극적으로 이론적·경험적으로 우리 삶과 관련된 생활공간 예를 들어, 최소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수준의 일반성을 지니는 협궤 내지 중위 수준의 이론 개발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31]

이를 위해 주제의 성격에 따라 질적·양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혼용하는 혼합방법(mixed-methods)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타의 축적에 따라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단일 사례 연구를 출발로 하여, 이론화를 위하여 비교연구의 과점에서 사례가 많으면 변수지향적 연구, 그리고 사례가 적으면 사례지향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특정 사례에 관한 심층적인 개성기술적(idiographic) 연구와 하나의 사례를 넘어 일반화를 지향하는 법칙정립적(monothetic)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과학의 토착화와 자국화의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사이드 알라타스(Alatas)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학의 자아준거성 구축은 구미사회라는 중심부 지식과 권력으로부터 해방담론의 구성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32] 그것은 한국 사회학 분야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들을 대상으로 우리 자신에 체화되어있는 피식민지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해방적 담론을 통해 학문적 종속의 문화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사회학의 모방이 이

31) 급진주의 발전이론을 보기로 들어보면, 프랭크(G. Frank)의 저개발심화론은 협궤이론(narrow-guaged theory), 에반스(P. Evans)의 종속적 발전론은 중위이론(middle-range theory), 그리고 월러슈타인(I.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은 거대이론(macro theory)이라 할 수 있다.

32) S. Alatas, 1993 "On the Indigenization of Academic Discourse," *Alternatives* 18(3).

루어지는 재생산기제를 파헤칠 수 있는 것이다. 중심부 강대국의 주의주장을 따르는 정신구조, 문화 제국주의의 맥락에서의 사회학의 의존성, 서구방식으로 학문의 구획을 제도화하는 교육제도, 교육제도와 교과과정에서의 근대주의적 기획, 표준 사회학의 동형화를 가속하는 시장논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21세기를 향하여 한국 사회학이 키워야 할 덕목으로 독창성, 인간중심성, 유관적합성, 비판개혁성, 미래지향성 등을 들 수 있다.[33] 바꾸어 얘기하면 서구 중심의 근대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생명존중의 가치 아래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독자적 이론을 개발하고, 체제의 모순을 혁파할 수 있는 비판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격변하는 미래환경에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학은 다가오는 세기의 우리 문제들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한 전략적 주제개발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분과학문들 사이의 학제성(interdisciplinary)을 활용하여 기초연구에 정책연구를 접목시킴으로써 사회학이 한국 사회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공공적 학문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학은 또한 현란한 수사와 모호한 추론을 지양하여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 논증을 통해 대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교육자와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사회학의 연구를 위한 보고를 제공한다. 근대라는 시·공적 장(場)에 전근대와 후근대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반근대 또한 병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곳보다 풍부한 실험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민국가, 민주주의, 시민사회, 시장경제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역학과 모순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오랜 단일국가와 민족형성의 역사, 분단의 해부와 통일의 시나리오, 민주주의를 향한 신·구 사회운동의 의미, 촛불시위의 혼합민주주의적 성격,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 포퓰리즘적 정책의 등장, 경제운영에서 정부와 시장의 보완, 실질적 민주주의를 둘러싼 대립, 진영논리에 따른 사회갈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해명되어야 할 논제가 많다.

이렇듯이 우리의 토양에 맞는 사회학의 정립을 위해서 몇 가지 방법론적인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 사회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구성할

33) 신용하, 1994「독창적 한국 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21세기의 한국 사회학』(한국사회학회 엮음), 문학과지성사.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기반하여 추상화 수준을 높인 개념을 만들어 보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분단 또는 분할국가 → 결손국가(a broken-nation state). 이 개념을 통해 국가연합, 연방제, 단일국가에 이르는 통일과정을 동태적으로 다룰 수 있다.[34] 둘째, 한국 사회에 걸맞은 이론구성을 위해 우리 역사의 구조와 변화를 바탕으로 일반화한 중위이론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합주의, 다원주의 → 국가 단원주의(state monism).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국가와 노동 사이의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다.[35] 셋째, 한국 사회에 독특한 문화적·구조적 동학과 모순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틀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계급과 계층 → 세(勢).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층적 계급화와 별도의 한국 사회에 고유한 세의 역학과 갈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36] 넷째, 한국의 미래 발전과 관련하여 소국(小國)의식과 대국(大國)의식을 넘는 '소강강중국(小康强中國) 발전모델'을 이론화할 수 있다. 인구규모가 5,000만 명에서 1억 명 사이의 국가로 소득수준이 일인당 30,000달라를 넘는다는 점에서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의 위상에서 보듯 아시아에서 지역강국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강소국이나 강대국 발전모델과 대비되는 우리 현실에 적실성을 지니는 발전모델을 제시한 것이다.[37]

대체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사회학은 주로 외래이론을 단순 가공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많은 양의 지식축적은 질적으로 독자적인 이론개발로 전환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이것이 한국 사회라는 시·공적 장에서 이론과 사실 사이의 괴리를 증폭시킴으로서 구미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음은

34) 임현진, 1994「한국에서의 민족형성과 국가건설: '결손국가론'을 중심으로」『전환기 한국 정치학의 새 지평』, 나남.

35) 임현진·김병국, 1991「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국가·자본·노동관계의 한국적 현실」『사상』 겨울호.

36) 임현진, 1999「국가와 지배구조: 중심지향적 사회의 세(勢)」『한국 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아르케.

37) 임현진, 2009「21세기 한국의 발전모델 탐색: 소강 강중국 발전모델을 향하여」『지속가능한 한국발전 모델과 성장 동력』, 서울대학교출판부.

물론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학계에 만연되어 있는 과도한 이론주의도 굳이 따지고 보면 현실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논증의 결핍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지난날 사림(士林)의 명분싸움처럼 일부 사회과학도들 사이에 퍼진 사실에 대한 불감증(不感症)은 이론의 편집증(偏執症)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구미 사회학에서 벌어진 정통(orthodoxy)과 이단(heterodoxy), 구(old)와 신(neo), 그리고 전기(pre)와 후기(post) 사이의 변용을 비단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우리 사회학계만큼 신속하게, 그러나 비판적 여과 없이 받아들인 나라도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은 인문학에 비해 한국 사회의 역사적 굴곡에 대해 그다지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해왔다. 그 주된 이유는 이론적 헤게모니 다툼이 실증적 논쟁이나 구체적 서사를 가로막았다는 사실에 있다.

이 점에서 21세기 한국 사회학의 올바른 자리매김은 '홀로서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 학계와의 '관계맺기'를 위한 방법과 논리를 개발하는 데 그 관건이 있다. 우리 현실을 바탕삼아 완제품을 만듦으로써 수입가공된 모조품의 시장석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에 관한 문제틀(problematic), 메타이론,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사회학의 일대 인식론적 전환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학과 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을 뛰어넘는 한국 사회학 바로 만들기는 매우 지난한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언을 결론적으로 피력하고 싶다.

첫째, 사회과학의 분야별 영역주의를 타파하여 우리 사회에 독특한 주제에 관한 융합(融合)과 통섭의 총합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를 당연히 포함하지만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사회과학 내부에 인위적으로 구획된 장벽을 낮춤으로써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보다 열린 지식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38] 이것은 또한 학제와 교육 프로그램과도 연관된 것으로, 특히 학문 후속

38) 이를 초제적(trans-displinary) 또는 탈제적(post-displinary) 접근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른다.

세대들에게 사회현상의 다양상과 삼투성에 인식의 폭을 넓혀 주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하리라 본다.

둘째, 사회학은 역사학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한국 사회에 관한 부분사적 · 전체사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사회학은 이러한 역사학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보다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론적 일반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학의 연구가 외래이론에 의해 계도된 사실분석이었다면, 앞으로는 한국 현실에 대한 '짙은 묘사(thick description)'를 바탕으로 '제한된 일반화'를 시도함으로써 우리 이론을 만들고 바로 세우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39]

셋째, 사회학은 다른 국가, 문화, 지역과의 비교연구를 배전의 노력으로 강화해야 한다. 물론 우리 사회를 준거로 하여 비교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연구의 국제화와 지역연구의 국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론적 · 경험적 지평에서의 논의도 가능될 수 있다. 비교연구가 사회학의 한국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지방주의(parochialism)를 탈피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고 안목을 열어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학은 한국적 지평에서 독창적 이론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학 분야에서 한국학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서구나 미국 학계에서 제시한 틀에 꿰어맞춰 설명하거나 이해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problem solving), 우리가 겪어왔고 또 지금 당면한 고유한 한국문제를 제대로 문제제기(problem posing 또는 problmatizing)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의 시각에서 문제틀을 정립하고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나아가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준거를 가지고 정의하거나 재해석할 수 있을 때, 한국학의 세계화가 가능할 수 있다. 한국의 지평에서 특수성을 지역적, 나아가 세계적

39) '짙은 묘사' 개념은 인류학자인 기어츠(Geertz)에서 가져왔다(C. Geertz,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한글판 번역자인 문옥표 교수는 'thick description'을 '중층 기술'이라고 번역했다[클리퍼드 기어츠(문옥표 옮김), 1998 『문화의 해석』, 까치].

보편성과 교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마치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정신으로 한국에서 미국학, 유럽학, 일본학, 중국학, 동남아학 등을 한국을 중심에 둔 지역연구로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학의 발전은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균형 잡힌 연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 점에서 근래의 기초학문 경시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른바 인문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학문정책을 대학정책에 앞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모든 연구를 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면서 최소한 한국학 관련 고문서를 비롯한 자료기반을 구축하는데 유사기관과 협력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학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 옛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자들이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내외에 걸쳐 기초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학의 진흥을 위한 주제개발, 공동연구, 연구지원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 대한 고언도 끝으로 하고자 한다. 공공외교의 차원에서 한국학 진흥을 위해 해외에서 정부가 더 이상 나서지 않은 것이 좋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외의 한국학 거점 연구기관을 변경함으로써 해외 학자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학의 발전은 정권자유적이어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 한국학, 세계화, 한류, K-pop, BTS, 세계지방화, 지방세계화, 사회과학 세계화의 방법론

〈Abstract〉

Globalizing Korean Studies: A Methodological Strategy Learning from the K-Wave(*Hallyu*)

Hyun-Chin Lim *

This paper explores a methodological strategy for globalizing Korean studies in the area of social sciences. It attempts to see what we can learn from the recent global influences of the K-wave(*Hallyu*), particularly in Korean pop music(K-pop). The K-wave has become a hybrid culture that plays a transnational role of cultural exchange and diffusion on a global scale.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dual process of glocalization *and* locabilization that has created a distinctive popular music in Korea. For instance, BTS provides an excellent exemplary case of the formation of hybrid culture. My contention is that Korean studies will be able to go beyond regional studies by analyzing the constellation of creative culture in popular music. I suggest three methodological strategies of concept formation and theory building for social sciences: (1) a trans-disciplinary approach within social sciences, (2) research collaboration between social sciences and history, and (3) a comparative research with nation-states, culture, and regions. Some of concepts and definitions from my research findings include a broken nation-state, *se*(勢), state monism, a eco-friendly middle power, etc. The methodological strategy helps us find out both universal and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ies on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It is hoped that Korean studies can become a more open, general knowledge system in explaining social phenomena both at home and abroad.

Key Words : Korean Studies, globalization, K-wave, K-pop, BTS, glocalization, locabilization, methodology for globalizing social sciences

* Professor Emeritus and Founding Director of Asia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